http://dx.doi.org/10.17959/sppm.2018.24.3.403

파열음의 외래어 표기법과 음운적 유형론: 현행 표기법의 수정에 대한 제언*

이주희
(경희대학교)

Lee, Juhee. 2018. Phonological typology of plosives and the orthographic convention of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4.3. 403-424. Most work on segment inventories is framed in terms of phonemic systems in the tradition of Trubetzkoy. However, laryngeal typology holds that thoroughly voiced stops in Romance languages will be represented phonologically with the feature [voice], leaving the voiceless unaspirated stops laryngeally neutral, whereas the typically aspirated stops of languages like English or German are marked with the feature [spread glottis], rendering the passively voiced stops in these languages neutral (Iverson and Salmons 2007). Following their notion of laryngeal typology, we argue that the choice of aspiration letters(ㅋ/ㅌ/ㅍ) in Korean for plosives in loans from 'voicing languages' (e.g. Romance or Slavic languages) is inappropriate, while the assignment of aspiration letters is relevant for the plosives from 'aspiration languages' such as English or German. Furthermore, to investigate these patterns of adaptation for the plosives in Korean loanwords, we have also reviewed historical changes for conventions in loanwords from various sources.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eywords: phonological typology, aspiration languages, voicing languages, loanwords, plosives, orthographic convention

1. 서론

한국어는 중국을 통해 유입된 한자계 어휘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에서 차용된 어휘가 외래어로서 어휘부에 포함되어 있다. 한자어는 오랜 시간을 거쳐 한국어 어휘에 흡수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응당 외래어이지만 한자계 어휘로 따로 구분하고, 이는 다른 언어의 외래어와 다르게 분류되어 판단한다. 하지만 중국의 한자음 소리를 처음 우리말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1448년에 간행된 『동국정운』이다. 여기서 사용된 중국어음의 표

* 이 논문에 대하여 적절한 학술적 논의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이 논문의 모든 오류나 문제점은 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는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 언해본의 예의에서 지정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는 한자음을 최초로 우리 문자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언어사적 의의가 있다.[1] 특히 당시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한자음을 바로잡고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오늘날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 여러 언어에서 유입된 외래어의 어휘를 정해진 표기원칙에 따라 쓰게 하는 것과 비슷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량의 외래어가 유입된 개화기에는 지석영(1908)이 주석한 『아학편(兒學編)』 등에서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일본어, 중국어 및 서양 언어인 영어 어휘의 발음을 적었다.

이렇듯 외국어 혹은 외래어의 말소리를 고유의 문자로 옮기기 위한 시도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이 시도가 체계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모든 언어는 당연히 각자의 독자적인 음운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에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기준을 다른 언어권에서 차용된 외래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령, 한국어에서 영어를 포함한 서양어의 현행 외래어의 표기는 무성 파열음의 경우 한국어 경음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래어의 어휘 중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권 차용을 살펴보자면 강세가 있는 음절의 어두 파열음일 경우에는 사실상 기식음으로 실현된다. 가령 영어에서 *pin, tin, kin*의 /p/, /t/, /k/는 어두 초성에서 기식음 [p^h], [t^h], [k^h]로 실현된다(Cruttenden 2001, Ahn and Iverson 2004, Ahn and Lee 2011). 실제로 문교부에서 고시한「외래어 표기법(1986)」은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를 한국어의 기식음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방식은 실제로 영어 원음과의 음성적인 거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권 외래어의 경우에는 <파크>, <트윈>, <크리스마스>와 같이 현행 표기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원음에 가까운 방향으로 표기될 수 있다.[2]

그러나 이런 방식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와 같은 로맨스 계통의 유럽의 언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 용례를 생각해 보면, 외래어 표기법과 이들 로맨스 언어의 어두 파열음과 영어와 같은 언어

---

[1] 훈민정음은 당시 외국어인 중국어의 말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따로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한문본 『훈민정음』 예의에는 나타나지 않고, 언해본 『훈민정음』 예의에서만 볼 수 있다. 고영근(2010: 8)은 중국어의 치두음(ㅈ, ㅊ, ㅉ, ㅅ, ㅆ)과 정치음(ㆆ, ㅊ, ㅉ, ㅅ, ㅆ)을 표기하기 위하여 치음 글자를 변형한 것은 현대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영어의 ‘v, f’ 를 표기하기 위하여 ‘ㅸ, ㆄ’와 같은 글자를 고안한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2] 본고에서는 편의상 < > 표시를 한글을 사용한 외래어 표기에 사용하도록 한다.

사이의 음성적 간극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대로 쓰기 위해 <빠리>, <빠니니>, <똘레도>가 아니라 <파리>, <파니니>, <톨레도>로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현상은 로맨스 계통의 언어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슬라브어 계통인 러시아어의 외래어 차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이주희 외 2014). 구체적인 언어학적 논의는 2장에서 이어지겠지만,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해서 비전공자의 의견도 여러 매체나 출판물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는 형편이다.[3]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언어에서 차용된 파열음의 외래어 표기법의 적절성 여부와 합리성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음운적인 유형론(Phonological typology)'과 연결하여 과거 개화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표기상의 혼란과 변화를 겪은 파열음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2. 외래어의 유입과 표기법의 혼재

2.1 외래어의 유입

고유의 한글문자가 1446년 반포되기 이전부터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구의 문화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던 개화기에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서구어가 직접차용 혹은 일본을 통한 간접차용의 형태로 유입되었다. 한자라는 문자와 더불어 한자계 어휘를 수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어휘부에서 한자어는 고유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언중에게 인식된다.[4] 따라서 한국어의 어휘부를 구분할 때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한다.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는 갑오개혁이 있었던 1876년의 개항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본다. 이주희(2010)은 개항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3] 염종선(2011: 495)은 출판사 창비의 외래어 표기법과 정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그의 논의는 우리말에 엄연히 <ㅃ>, <ㄲ>, <ㄸ> 같은 경음이 있는데 프랑스어,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 뿐 아니라 슬라브어인 러시아어 등에서 영어에서 적용되는 기식음 표기를 그대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언어에는 기식음 표기가 아니라 경음 표기를 하는 경우 <똘레랑스>, <이딸리아>, <뚜르게네프> 처럼 원음에 훨씬 가깝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4] 이익섭 외(1997: 151, 147)는 한국어에서 '외래어' 범주는 중국어로부터 들어온 차용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따로 '한자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 특히 고려 광종 때(서기 958년) 과거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문을 통해 한자어가 광범위하게 유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시기가 우리 언어에서 일본어의 영향과 유입이 매우 빈번했던 기간이라고 논의한다. 근대자료는 대부분 문헌이므로 외래어를 통해 당시 유입된 서양어의 발음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표기법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외래어 표기가 여러 형태의 변이형으로 사용되다가 최종적인 표기의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외래어의 차용에 있어서 개화기 당시의 외래어 발음 및 원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표기법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은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당대의 고민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법이 여전히 다양한 언어의 음운 및 음성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은 영어와 전혀 다른 유형의 언어인 유럽의 많은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바로 이점이 차용된 외래어와 원음 사이의 음성적 괴리감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다양한 언어의 파열음을 접하게 될 때에 선택했던 외래어 표기에 대한 다양한 결정은 '원음주의'와 '표음주의' 사이에서의 언어학적인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평음(ㅂ, ㄷ, ㄱ), 경음(ㅃ, ㄸ, ㄲ), 기식음(ㅍ, ㅌ, ㅋ)의 삼면대립(three-way contrast) 체계를 형성한다. 우리의 파열음 체계 안에서 충분히 수여 언어의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외국어에는 있으나 우리말에 없는 말소리에 대한 인식으로 없는 글자를 만들어 사용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안정될 때까지 개화기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혼란기를 거친 외래어 표기법은 최종적으로 외국어의 파열음을 외래어로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2장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파열음의 경우에는 언어의 음운 · 음성적인 유형에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2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의 원칙은 문교부에서 처음 고시했으며, 이후에 문화부(1992)를 거쳐 문화체육부(1995)에서 고시하게 되었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여기서 제 4항'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주로 논의할 대상이 파열음의 차용과 그 표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도록 하기 때문에 1:2 적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섭(1997: 15)에 따르면 (1)의 「외래어 표기법」과 큰 차이가 있었지만, 개화기에도 국어 정책의 일환으로써 고종 31년(1894)에 외국 국명과 지명 및 인명을 국문으로 적기로 한 법령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당시 문헌에 나타난 외국의 국명과 지명 및 인명은 서양어를 직접 차용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 등의 제3국으로부터 간접 차용했기 때문에 전혀 원음과는 다르게 표기되어 왔다. 가령 德義志(독일)나 法蘭西(프랑스)는 중국에서 번역 표기한 것으로 이를 간략히 줄여서 德國(덕국)과 法國(법국)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또한 獨逸(독일)과 佛蘭西(불란서)는 한자식 국가명으로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차용했다.

당시 조선이 외래어 표기에 대한 법령이 있었음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를 차용했다는 점은 조선이 개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열강과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외래어 표기법이 규정상으로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은 (2)에 제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이 마련된 이후이다.[5] 이전에는 한자음사어와 한글음사어가 사용되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표기방식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던 시기였다.[6]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외래어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5]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가 제정·공표한 우리 나라 어문 규정에 관한 통일안이다. 우리말의 맞춤법에 대한 규칙을 체계적으로 세운 것으로서 총론·각론·부록으로 짜여져 있으며, 모두 65항으로 되어 있다.

[6] 한자음사어는 외래어를 모두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을 지칭하며, 한글음사어란 외래어를 한글로 직접 표기한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심사자는 음사어라는 용어

(2) 제6장 외래어 표기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여기서 핵심은 표음주의를 취하되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후 조선어학회에서 펴낸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총칙에서도 철저하게 표음주의를 표방하되 한글에서 사용하는 문자만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7]

(3) a.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 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써 적는다.
b.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음성기호를 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조항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의 정신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외래어 표기 원칙은 1933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임동훈 1996). 또한 (3a)에서 공표한 표음주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했던 이유는 한국어음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의 말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에 없는 자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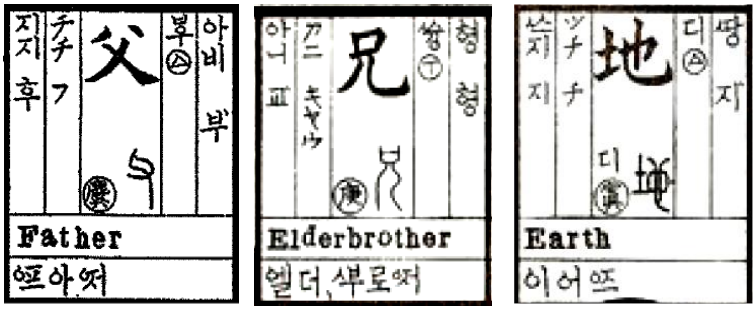
(4)에 제시된 이미지는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아학편』의 일부분이다. 지석영이 주석한 이 책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

를 대신하여 전사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사법(transcription)이 음성표기라는 측면의 용어이지만 인용된 저자의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7] '조선어학회'에서 정인보, 이극로,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견해를 모아 1940년에 완성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1941년에 간행한 규정집이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총칙과 세칙,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3)에 제시된 두 가지 항목은 총칙의 내용이며, 부록에는 책의 말미에 '외래어표기법(外來語表記法) 예어(例語) 색인(索引)'을 두고 원어에 대한 한글 표기의 예를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였다.

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부호와 특이한 표기법을 시도하였다.

(4) 지석영의 『아학편』



가령(4)의 father에서는 초성 /f/ 를 <ㅇㅍ>으로, 영어의 치간 마찰음 /ð/를 <ㅇㅈ>으로 표기하였다.[8] 또한 elder brother의 유성 파열음 /b/를 합용병서 <ㅺ>으로 표기하여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였다. 유성 파열음에 이렇게 합용병서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큰 특징중의 하나였다.

한성우(2009, 2010)은 외래어를 위해 한글 표기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글이 음소문자이므로 어떤 소리든 적을 수 있는 문자라고 하지만 한국어의 음운체계 안에서 사실상 한정된 표기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4)의 경우처럼 원래 한국어에 없는 음을 위해 특수한 표기를 마련한 것은 영어 자체는 물론 당시 음운과 음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9]

그렇다면 명문화된 외래어 표기규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출판된 개화기의 다른 출판물에서는 영어의 파열음을 어떻게 표기하였는지 다양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5a)을 보면 유성 파열음의 표기는 하나의 어휘에서도 변이형이 다양하지만 『아학편』에서 <ㅺ로써>로 표기한 것처럼 유성 파열음의 대부분을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8] 아학편의 경우 (4)에서 제시된 치간마찰음의 표기를 보면 제시된 father의 /ð/과 earth의 /θ/이 <ㅇㅈ>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개화기 전반적인 표기를 종합해 보면 /θ/을 <ㅇㄷ>으로 표기해 구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유식(2000)은 영어의 치간 마찰음 /θ/를 <ㅇㄷ>으로, /ð/는 <ㅇㅈ>으로 권점을 붙여 당시에 사용한 것은 태서신사(1897)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9] 한성우(2009)는 중국어와 영어의 자음 표기를 위해 'ㅇ'을 붙인 <ㅇㄷ, ㅇㅂ, ㅇㅍ, ㅇㅈ, ㅇㅊ>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당시 시도된 다양한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며 외국어의 음성적인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개화기 파열음의 한글음사어[10]

a. ① 뿌릿탠·쁘리탠·쁘리티쉬(Britain)
: 뿌릿탠 벨기움 갓흔 나라는<소년1.50>
: 쁘리탠국 天文學者 허쉘一世라<청춘1.17>
: 쁘리티쉬 국민에게는<소17.7>
② 뽀스톤·보쓰톤·뽄스톤·쁜쓰톤(Boston)
: 뽀스톤에서 발힝ᄒᆞ는 『튜린스크립트』보를 거ᄒᆞᆫ즉<신한민보 1909.9.29>
: 보쓰톤늬유욕 東北 九百二十里<청춘1.부87>
: 逃亡하난 奴隸를 뽄스톤으로 拿去한 一事는<소년13.24>
: 쁜쓰톤에 생하야<소년14.48>
③ 써블린(Dublin): 써블린 아일랜드 首府<청춘1.부24>
④ 뗴트로이트(Detroit): 緖端은 뗴트로이트인데<소년4.34>
⑤ 끄린위치(Greenwich)
: 쁘리탠국 끄린위치를 통과한<소년16.12>
⑥ 쏠드 코쓰트(Gold coast): 쏠드코쓰트 植民地<소년8.58>
⑦ 그린랜드·끄린랜드(Greenland)
: 이 짐승은 그린랜드가튼 極海의 치운 곳세 잇스니<청춘8.62>
: 끄린랜드 근방에서 어서온<소년3.57>
: 끄린랜드와 北亞米利加<청춘9.55>

b. ① 변실바니아·펜실베니아·펜실바늬아·펜실바니아(Pennsylvania)
: 변실바니아주에서 石胸油를 만히 出ᄒᆞ며<국민[11] 134.38>
: 펜실베니아라 일흠ᄒᆞ엿더라<대한민보 1909.10.8>
: 펜실바늬아道 代議士<소년13.34>
: 펜실바니아.메릴랜드.버지니아等<청춘10.71>
② 파나마(Panama): 파나마運河의 開通을<소년12.88>
③ 덱서쓰·텍사쓰(Texas)
: 南아메리가 大陸 덱서쓰道<소년9.21>
: 텍서쓰도에는 농사짓는 개아미<청춘9.57>
④ 트라팔싸아·트라팔싸 (Trafalgar)
: 넬쏜이 트라팔싸 대해전의 밤에<소년6.27>
: 트라팔싸의 戰敗 艦隊를 보아라<소년6.27>

---

[10] (5)의 어휘는 박영섭(1997)의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의 외래어 편에서 유·무성 파열음과 관련되는 한글음사어를 선정하였다.

[11] 국민소학독본(1895)은 교과서이다.

⑤ 칸더기·컨턱기·켄터키(Kentucky)
: 미국 칸더기 굴속에<경세종 29>
: 미국 컨턱기 매일필이란 동리셔<독립신문1.130>[12]
: 조곰 前에 켄터키로서 갓 올마온 故로<청춘10.34>
⑥ 칼늬포늬아·칼늬포오늬아·칼니포니아·칼레포니아(Califirnia)
: 칼늬포늬아 일대의 땅으로<소년3.11>
: 이에 칼늬포오늬아에서 産한 金塊를 보이고<소년21.47>
: 칼니포니아 외인 토디 금지 법안 곳흔 것을<신한민보1913.10.31>
: 아메리가 合衆國 칼니포니아道<청춘1.175>
: 칼레포니아에 出張한 사이에<청춘6.34>

(5a)의 유성 파열음의 경우는 <보스톤>과 <그린랜드>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우 규칙적으로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용례는 일부의 경우지만 참고한 자료집의 어휘 목록에서는 광범위하게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였으며, 극히 일부에서만 평음 <ㅂ, ㄷ, ㄱ>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ㅅ'계 합용병서의 변이형이었을 뿐 이 표기가 대표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5b)의 무성 파열음의 경우는 <변실바니아>와 <덱서쓰> 같은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매우 규칙적으로 기식음 표기를 했다.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만 제시했으나 어휘목록 전체에서는 광범위한 기식음의 표기가 대부분이었고, 다만 변이형으로만 <ㅂ, ㄷ, ㄱ> 표기형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당시 무성 파열음의 표기는 기식음의 표기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정해진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5)의 표기상의 특징은 나중에 변화하게 되는데 박창원·김수현(2004: 69)에서는 어두에서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던 유성 파열음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이 제정된 이후로는 (6)처럼 주로 각자병서로 표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전 시기와 대조되는 큰 표기상의 특징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6) 1933년 이후의 유성 파열음 표기[13]
a. banana 빠나나(모던)

[12] 을유출판사에서 영인한 것이며 < > 속의 숫자는 연도에 따라 분권된 영인본의 수이다. 따라서 <독립신문1.130>은 1권으로 1896년 4월~12월까지를 의미한다(박영섭 1997: 10).

[13] 제시된 어휘는 박창원·김수현(2004: 69-70)의 예를 참고하였다.

	Balkan	빨칸(신동아. 1936.81)
	bus	버스/빠스(모던)
	boy	뽀이 (모던, 조선어)
b.	double	따불(모던, 조선어), 떠불(모던)
	dollar	딸나/딸라/딸러(모던)
c.	gum	껌(모던, 조선어)
	gasoline	개소린(모던) /까소린(모던, 조선어)
	gas	개스/깨스(모던)
	gallon	까론(신동아. 1936.84)

(5a)에서 'ㅅ'계 각자병서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6)에 제시된 단어는 간혹 일부 변이형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경음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경음이 한국어 파열음에 있는 우리 음이기는 하지만, 과연 당시의 경음 표기가 제시된 영어권 외래어에 적합한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다.

비록 'ㅅ'계 각자병서를 지양하고 유성 파열음을 경음 표기로 할당함으로써 한글자모의 체계 안에서 외래어 표기를 시도하는 듯 보였으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이 만들어진 이후에 출판된 이종극의 『모던 조선외래어사전(1937)』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에 없는 음소인 /f/와 /v/를 위해 각각 <ㅸ>과 <ㅹ>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새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당시 출판된 사전에서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새 문자'의 사용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을 통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일제 말기에 발표되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유성 파열음 /b, d, g/는 모두 <ㅂ, ㄷ, ㄱ>으로 무성 파열음 /p, t, k/는 <ㅍ, ㅌ, ㅋ>으로 표기했으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표음주의를 표방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문교부의 「들온말 적는 법(1948)」을 통해 다시금 외래어의 표기는 원음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들어온 어휘인 외래어의 말소리가 한국어에 없는 음가를 가진 경우 달리 한글로 표기할 방법이 없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원음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네 문자(ㅿ, ㅱ, ㆄ, ㆇ)를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원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치에 따라서 표기방식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7)「들온말 적는 법(1948)」의 파열음 표기 원칙[14]

	기식	무성	유성	기식	무성	유성	기식	무성	유성
	kh	k	g	th	t	d	ph	p	b
어두	ㅋ	ㄱ	ㄲ	ㅌ	ㄷ	ㄸ	ㅍ	ㅂ	ㅃ
어중	ㅋ	ㄲ	ㄱ	ㅌ	ㄸ	ㄷ	ㅍ	ㅃ	ㅂ
어말	ㅋ	ㄱ	ㄱ	ㅌ	ㄷ	ㄷ	ㅍ	ㅂ	ㅂ

(7)의 원칙에서 유성 파열음은 어두 위치에서 모두 경음에 할당하고 있는데, 이 점은 (6)의 예처럼 1933년 이후의 유성 파열음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의 파열음 표기원칙은 1자(字)다음(音)주의인데 반하여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은 1음(音)1자(字) 주의라는 점이 크게 다른 부분이다(유경숙 1988, 이경숙 2016). 또한 각자병서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경음을 할당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7)의 표기방식이 원음주의 표방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대부분의 외래어였던 영어라는 언어의 음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영어의 경우는 음성적으로 경음이 부재한 언어이기 때문이다(Iverson and Salomon 1995, Ahn and Iverson 2004). 또한 영어의 어두 유성 파열음은 사실상 음성적으로 [+유성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Cruttenden 2001, Hualde 2005). 하지만 (7)에서 경음이 어두 유성음의 표기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고시한 「들온말 적는 법(1948)」은 국가의 주도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붙임 Ⅱ로 제시된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역시 국가가 주도하여 정한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들온말 적는 법(1948)」은 문교부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되었다. 국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교부에서 고시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외래어(로마자)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에 따른 현용 24자모를 쓴다.'고 고시한다. 파열음의 수용에 있어서 구 표기와 다른 점은 파열음이 말음일 때는 모음 'ㅡ'를 붙여 재음절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 표기에서 <케익>으로 표기했다면 새로운 표기방식에서는 <케이크>로 적도록 한 점이다.

이후 현재 사용되는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1986)」은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의 원칙을 고수하되, 파열음에 된소리를 반

[14] 필자가 현대 언어학의 용어로 수정하였다.

영했던 사항을 원천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외래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되고 그 언어가 가진 음성적 유형에 따라서 일부는 경음의 표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파열음 표기에 무조건 우리 말소리의 경음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모순된다. 이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거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8) 외래어 표기법[15]

시기	규정	표기의 특징
1894	국어 정책 관련 자료 (官報)	한자음사어, 한글음사어 : 다양한 방식이 공존한다
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	표음주의 : 새로운 문자와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194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표음주의 :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을 사용한다
1948	들온말 적는 법	원음주의 :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사용한다
1958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	표음주의 : 한글 정자법의 자모만 사용한다(1941년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안을 계승)
1986	외래어 표기법	표음주의 :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이 원칙이다(파열음의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지 않음)

(8)에서 보듯이 표음주의와 원음주의 사이를 오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했던 외래어 표기법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장애음의 표기방식 중에서도 파열음의 대응관계였다. 현행 규정에 고시된 '파열음의 된소리(경음)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과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 부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3장에서는 여러 언어의 파열음의 체계를 음운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들의 음운체계가 한국어에서 외래어로 차용될 경우, 현행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음운적 유형론과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

영어를 비롯한 많은 유럽 언어의 후두음 속성은 전통적으로 이분법적인 [±유성성] 자질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변별자질의 분

[15] 이주희(2013: 495)의 도표를 인용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류는 언어별 음성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분류로써, 언어별로 서로 다른 후두음 속성을 같은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Ahn and Iverson 2004, Iverson and Salmons 2007, Ahn and Lee 2011, 이주희 외. 2014).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및 프랑스어와 같은 로맨스어나 러시아어 같은 슬라브어 파열음의 VOT (Voice onset time)는 영어와 독일어 같은 게르만어와 음성적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오래 전에 연구되었다(Lisker and Abramson 1964). 음성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로맨스어와 슬라브어의 VOT는 영어보다 훨씬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b/, /d/, /g/가 완전하게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선도(voice lead) VOT값을 갖지만,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는 VOT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므로(short VOT lag) 어두와 어말의 위치에서 사실상 [+유성성]의 속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나 독일어의 파열음은 VOT가 지체되어 후행하는 모음이나 공명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두 위치에서 기식음이 실현되지만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및 러시아어에서는 기식음이 실현되지 않는다(Harris 1994, Iverson and Salmons 1995, Flemming 1995, Ewen and van der Hulst 2001, Hualde 2005, Ahn and Lee 2011, 이주희 외. 2014). 다음의 도표는 이와 같은 후두음의 유형별 분포를 보여준다.

(9) 후두음의 자질 유형[16]

	/p/~/b̥/	/b/	/pʰ/	기타
영어, 독일어	[ ]		[spread]	
한국어	[ ]		[spread]	CC(경음)
태국어	[ ]	[voice]	[spread]	
러시아어	[ ]	[voice]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	[voice]		
힌디어	[ ]	[voice]	[spread]	[spread]& [voice]

[16] 지면상의 이유로 (7)의 도표는 [spread], [voice]의 자질의 분포만을 표시했으며, Iverson and Salmons (1995)과 Ahn and Iverson (2004)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기타 영역에서 CC (Consonant cluster)는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분류하는 자음(ㄲ/ㄸ/ㅃ)으로 중복자음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조음과정에서 폐쇄기간이 단일 자음에 비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Ahn 1999). Ahn and Iverson (2004)에 따르면 이 중복자음은 음성실현 과정에서 당연히 성대의 긴장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순수하게 [constricted] 자질을 갖는 유형은 K'ekchi와 같은 유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9)에 제시된 후두음의 자질 유형에 따라 다음에서 각 언어권의 외래어 표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3.1 ‘파리’와 ‘빠리’의 문제

후두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삼면대립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어의 파열음에 대한 영어와 독일어의 대응은 (9)의 도표에서 제시하듯이 무성 파열음과 무성 기식음의 자질을 함께 공유한다. 다만 한국어의 경음에 해당하는 음성은 이원대립을 하고 있는 영어의 파열음에 할당할 적절한 음소가 없다. 독일어도 파열음의 음운적 유형은 영어와 같은 범주이다. Iverson and Salmons (2007)은 독일어의 어말 무성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파열음은 전통적인 유·무성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성성 언어(Voice language)’와 ‘기음성 언어(Aspiration language)’로 분류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일어, 영어, 및 기타 독일어계(네델란드어, 이디시어 등)에서 파열음은 어두에서 VOT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며, 파열음의 위치에 따라 어두와 어말에서는 전혀 [+유성성]의 속성을 갖지 못한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대로 무성 파열음은 한국어 격음 표기로 유성 파열음은 평음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로맨스어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 Hualde (2005: 150)는 스페인어의 유성 파열음 /b, d, g/는 어두에서 선도VOT를 갖는 반면, 영어 유성 파열음이 VOT 가 지체되어 어두에서 무성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음운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0) 영어와 스페인어의 VOT (LaCharité and Paradis 2005)

	영어	스페인어
/p/, /t/, /k/	+VOT (>50ms)	+ VOT (0~30ms)
/b/, /d/, /g/	+VOT (0~30ms)	− VOT (− 40~0ms)

비슷한 의견으로는 (10)의 LaCharité and Paradis (2005)의 주장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무성 파열음은 영어의 유성 파열음과 VOT 대역이 유사하다. 전술했듯이 어두에서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사실상의 기식음이고(long voice lag), 유성 파열음은 어두에서 무성음으로 실현되는(short voice lag) 음성적 특징을 갖는 반면에, 스페인어의 유성 파열음은 선도(voice lead) VOT값을 갖는 유형이므로 언어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영어

나 독일어와 같은 유형의 외래어 표기방식을 고수한다면 원음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구본관(2010: 93, 101)에서 연구한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 평가에는 총 7개국의 언어 중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어의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언어의 외래어 표기가 실제로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오용된 표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기식음의 경음표기였는데 저자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오용 예에서 규범표기(기식음)보다 오용표기(경음)가 원음에 더욱 가까워지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어의 경우는 조사된 기업, 학술, 출판 자료에서 오류 비율이 총 91.07%였고, 놀라운 점은 학술분야에서는 오류 비율이 100%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문 학술 연구자로부터 생성된 표기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구본관(2010)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어의 경음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의 스페인어의 발음에 도움이 되므로 대중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에 경음 표기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한다.

스페인어만이 아니라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의 유성 파열음은 모두 선도 VOT값을 갖는 유형이므로 한국어 파열음의 체계에서 본다면 이런 언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의 경우는 파열음 표기로는 한국어의 경음 표기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는 <파리>보다는 <빠리>가 스페인어는 <톨레도>보다는 <똘레도>가 이탈리아어 역시 <파니니>보다는 <빠니니>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원음에 훨씬 가깝다. 원음주의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말의 음운체계 안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음운적 유형론(Phonological typology)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외국어로부터 유입된 외래어의 모든 무성 파열음을 모두 경음으로 표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해당 언어의 파열음의 특성에 따라서 Iverson and Salmons (2007)의 주장처럼 ‘유성성 언어(Voice language)’와 ‘기음성 언어(Aspiration language)’로 분류하고, 그 음운적 유형에 따라서 경음 혹은 기식음의 표기를 고려하면 된다.

3.2 ‘톨스토이’와 ‘똘스또이’의 문제

대표적인 슬라브어에 속하는 러시아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3.1장에서 게르만어에 속하는 영어, 독일어 파열음의 VOT 특성이 로맨스어에 속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어의 VOT와 성질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슬라브 언어인 러시아어는 로맨스어와 마찬가지로 선

도(lead) VOT 값을 갖는다(이주희 외 2014). 또한 Iverson and Salmons (2007)의 분류를 따르면 로맨스 언어처럼 기식음이 부재한 '유성성 언어'의 유형에 해당한다. 러시아어 파열음의 VOT는 다음과 같다.

(11) 러시아어 파열음의 어두 VOT (Kulikov 2012: 178)

유성	VOT(ms)	무성	VOT(ms)
b	−99.6	p	16.8
d	−105.3	t	18.7
g	−80.8	k	34.3

Kulikov (2012)에서 러시아어 유성음의 VOT는 선도 VOT값을 고려하면 음수 값을 갖는다. 또한 삼면대립을 형성하는 한국어의 파열음 체계에서 러시아어의 음수 값에 가깝게 대응할 수 있는 음성은 평음에 해당한다.

이주희 외(2014)에서는 러시아 외래어의 차용어 연구에서 러시아 구어체가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러시아 현지 한글신문 『선봉』지에 실린 한글표기 연구를 통해 외래어 표기법이 정착되기 이전의 러시아어의 외래어 표기 연구를 하였다. 창간되었던 1922년부터 1937년 폐간에 이르는 신문자료 『선봉』에서 당시 러시아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는 유성음 /b/, /d/, /g/는 예외 없이 <ㅂ/ㄷ/ㄱ>으로 표기하였고, 무성음 /p/, /t/, /k/는 한국어의 경음 <ㅃ/ㄸ/ㄲ> 혹은 격음 <ㅍ/ㅌ/ㅋ>으로 대응되었다. 러시아어 유성음이 한국어 평음으로 규칙적 대응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무성음의 경우는 경음과 격음이 함께 분포되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선봉』에서 추출한 전체 데이터에서 러시아어 무성음의 차용만을 놓고 본다면 격음보다는 경음의 양이 현저하게 많았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무성음의 경음 표기가 현저함에도 어말에서는 경음 표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무성 파열음이 말음에서는 기식음화되는 음성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슷한 견지로써 최문정(2001)은 러시아어 고유명사의 경우 이미 굳어진 표기는 그대로 두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열음의 위치에 따라서 경음의 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러시아어 파열음 표기는 일괄적으로 경음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똘스또이'라고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라고 표기하도록 고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출판사에서는 러시아 문학 소설의 명칭에 실제로 경음 표기를 사용해서 차별화하고 있다.

3.3 그 때는 '푸켓'이고, 지금은 '푸껫'이다

외래어의 파열음에 대해 한국어의 경음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단점에 대해 본고의3.1로맨스어와 3.2 슬라브어의 예를 들어서 '유성성 언어'의 경우에는 언어의 특성상 기식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경음 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경음의 표기를 일부 허용하게 되었는데(2004년 12월 고시된 「동남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그 대상은 동남아 3개국(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에 한정되었다.[17] 가령, 태국어로부터 들어온 외래어 지명의 경우 이전까지는 <푸켓> 혹은 <푸케트>로 쓰던 방식을 벗어나 <푸껫>으로 쓰도록 고시한 것이다.

(9)에서 제시한 태국어의 후두음의 자질 유형은 [spread]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유무성 대립이 파열음의 속성을 일차적으로 결정하므로 '유성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Iverson and Salmons 2007). 다음은 태국어의 파열음 체계이다.

(12) 태국어의 파열음 (Ahn and Lee 2011: 301)

[ ]	[voice]	[spread]
pâ: '아주머니'	bâ: '미친'	p^hâa: '옷감'
ta: '눈'	dà: '저주'	t^hâ: '이륙장소'
kā: '찻주전자'	--	k^hā: '즉시(사망)'

(12)에서 태국어의 파열음은 /b/, /p/, /p^h/의 삼면대립 체계를 형성한다. 유·무성 대조 이외에도 기식음 속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태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폐쇄기간이 긴 중복자음이 변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유성자음은 음소적으로 빈 자리일 뿐이다. 음성·음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태국어 문법서에서 이한우(2002)는 한국어 화자들이 태국어의 /p^h/, /p/, /b/를 각각 /ㅍ/, /ㅃ/, /ㅂ/으로 대응한다고 논의한다. (13)에서 제시하듯이 Ahn and Lee(2011)은 VOT의 대응관계를 통해 이한우(2002)의 파열음 대응관계와 같은 대응을 제시한다.

[17] 여기서 경음의 적용을 받는 언어는 태국어와 베트남어이다.

(13) VOT 평균값(어두/어중)

	한국어	태국어
/b/, /d/. -[18]	--	-88 ms
/p/, /t/, /k/	35 ms	16 ms
/p'/, /t'/, /k'/	12 ms	--
/p^{h}/, /t^{h}/, /k^{h}/	93 ms	82 ms

(Lisker and Abramson 1964, Abramson 1989, Kim 1965)

VOT 값이 유사한 태국어의 기식음은 한국어의 기식음 음소로 할당되고(1단계), 이어서 한국어의 경음은 태국어에서 빈 자리지만 상대적으로 VOT값이 가까운 태국어의 무성 파열음에 할당된다(2단계). 마지막으로 태국어의 유성파열음은 한국어의 무성 파열음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된다(3단계).

이런 VOT의 대응은 실제로 개정된 「동남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태국어 외래어 표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틀 안에서 <삐마이>, <딱>, <깨우> 같은 경음 표기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말소리의 체계 안에서 태국어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로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아시아권 언어인 태국어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경음의 표기가 왜 유럽의 언어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김세중(1993: 66-7)은 (1)의 「외래어 표기법(1986)」제4항의 문제에 대해 경음에 가까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무성 파열음을 격음으로 표기한 전통이 오늘날 경음 표기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논의한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의 외래어를 표기할 때 경음을 쓰게끔 한다면 현행 표기법을 어떻게 해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4) a.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해당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수정한다.
b. 러시아어: 공식적인 표기법이 없으므로 새로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만들어 반영한다.
c. 프랑스어: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바꾸어야 한다. 즉, 'p, t, k'에 'ㅍ, ㅌ, ㅋ'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ㅍ/ㅃ, ㅌ/ㄸ, ㅋ/ㄲ'이라고 하고 언어에 따라 선택됨을 명기한다.

(14)에 제안된 언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세중(1993)의 주장이다. 당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제언이므로 파열음

[18] 연구개음 /g/는 빈자리이다. (12)의 파열음 도표 참조.

의 논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규정과 비교해 본다면, (14a)에 해당하는 언어의 자모 대조표에서 여전히 경음은 없다. (14b)에서 공식적인 표기법이 없던 러시아어의 자모 대조표는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경음 없이 러시아어 파열음의 유성 무성에는 각각 'ㅂ'과 'ㅍ'만 대조하도록 한다. (14c)의 제안은 현재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어는 과거에도 따로 해당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후 파열음에 대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언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남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 태국어와 베트남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 언어의 외래어를 한국어의 경음과 연결하도록 개정한 것은 무척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서양의 언어에서는 경음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가? 이러한 규정의 보수성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푸껫>은 가능하고 <빠리>는 잘못된 것이라면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음운적 유형론의 근거에서 보자면 두 언어의 무성 파열음은 똑같이 한국어의 경음에 적용되는 편이 합리적인 '유성성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성성 언어'의 외래어 표기를 똑같이 '기음성 언어'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음표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4. 결론

'파열음의 표기에 된소리(경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4항의 명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과거(개화기)로부터 현재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어휘(외래어)의 파열음을 어떻게 표기해 왔는지 표기의 변천법과 이에 대한 규정의 변화과정을 통해 원음주의와 표음주의에 대한 언어적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규범은 중요하고 그 규범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적 약속을 따르는 일은 중요하다. 당연히 원음과 한국어음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사용자마다 소리의 인상적 판단기준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의 오용을 막고 외래어 표기법의 일관성을 따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국제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원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아졌고,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규정이 획일화된 언어와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면 언중의 언어사용과 큰 괴리가

생길 것이다. 특히 3.1에서 논의된 구본관(2010)의 조사에서 로맨스어의 외래어 표기의 오류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그 조사결과를 단지 표기법의 오류로만 판단하고 기식음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계도할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3장에서는 후두음의 유형(Ahn and Iverson 2004, Iverson and Salmons 2007)을 바탕으로 '유성성 언어(voicing language)'와 '기음성 언어(aspiration language)'로 파열음의 체계를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기음성 언어에 속하므로 유성성 언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의 무성 파열음 표기는 경음으로 적용하고, 같은 기음성 언어로부터 사용된 외래어 표기는 기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언어권 유형별로 VOT값의 차이와 대조를 통해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동남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2004)」을 통해 언어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태국어와 베트남어의 경음표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서양 언어의 외래어 표기에도 이들 언어를 전공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를 제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파열음의 외래어 표기 방식은 한국어 말소리의 틀(표음주의)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장에서 논의된 서양 언어의 외래어 표기를 원음에 충실(원음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고영근. 2010.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구본관. 2010.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김세중. 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 61-7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박영섭. 1997.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5 (외래어 편)*. 박이정.

박창원·김수현. 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52-102. 국립국어원.

신유식. 2000. *개화기 국어 표기법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종선. 2011. 이딸리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창작과비평* 39.4, 494-498. 창비.

유경숙. 1988.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번자(飜字)표기문제. *논문집* 9.1, 151-173. 경성대학교.

이경숙. 2016.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 변천 과정과 수용 양상: 외래어 표기법(1986) 제정 이전의 문교부안과 편수자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1, 107-140.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익섭·이상억·채완. 2005.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종극. 1937. *모던조선외래어사전*. 한성도서주식회사.

이주희. 2010. 영어 순치 마찰음의 외래어 차용: /h/는 일본어 투 외래어의 흔적인가?, *언어연구* 26.3, 657-678.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주희·변군혁·안상철. 2014. 러시아 외래어의 파열음 차용. *언어연구* 30.1, 171-199. 한국현대언어학회.

이한우. 2002. *요설 태국어 문법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임동훈. 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41-61. 국립국어원.

최문정. 2001. 러시아어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법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16.2, 27-59. 한국슬라브학회.

한성우. 2009. 『兒學編』을 통해 본 근대 동아시아의 언어 교류. *한국학연구* 21, 267-30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2010. 개화기 외래어 표기의 음운론. *우리말글* 49, 63-86. 우리말글학회.

ABRAMSON, ARTHUR S. 1989. Laryngeal control in the plosives of standard Thai. *PASAA*19.2, 85-93.

AHN, HYUNKEE. 1999. *Post-release phonatory proc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HN, SANG-CHEOL and GREGORY IVERSON. 2004. Dimensions in Korean laryngeal phonolog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3.4, 345-379.

AHN, SANG-CHOEL and JUHEE LEE. 2011. Loan adaptation of laryngeal features. In Folli, Rafaella and Christine Ulbrich (eds.). *Interfaces in Linguistics: New Research Perspectives* (Oxford Studies in Theoretical Linguistics 31), 299-317. Oxford University Press.

CRUTTENDEN, ALAN. 2001. *Gimson's Pronunciation of English* (6th edition). Arnold: London.

EWEN, COLIN. J. and HARRY VAN DER HULST. 2001. *The Phonological Structure of Wo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LEMMING, EDWARD. 1995. *Auditory Representations in Phonology*. PhD Dissertation, UCLA.

HARRIS, JOHN. 1994. *English Sound Structure*. Oxford: Blackwell.

HUALDE, JOSÉ IGNACIO. 2005. *The Sounds of Spa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VERSON, GREGORY K. and JOSEPH C. SALMONS. 1995. Aspiration and laryngeal representation in Germanic. *Phonology* 12, 369-396.

_____. 2007. Domains and directionality in the evolution of German final fortition. *Phonology* 24, 121-145.

KIM, CHIN-WOO. 1965.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 339-59.

KULIKOV, VLADIMIR. 2012. *Voicing and Voice Assimilation in Russian Stop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LACHARITÉ DARLENE and CAROLE PARADIS 2005. Category preservation and proximity versus phonetic approximation in loanwords adaptation. *Linguistic Inquiry* 36.2, 223-258.

LISKER, LEIGH and ARTHUR ABRAMSON. 1964. Across language study of voicing in initial stops. *Word* 20, 384-422.

<어문규정집>

조선어학회. 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194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문교부. 1948. 들온말 적는 법.

문교부. 1958.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

문교부. 1986. 외래어 표기법.

문화관광부. 2004.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Juhee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02447
e-mail: juhee@khu.ac.kr

received: November 8, 2018
revised: December 17, 2018
accepted: December 21, 2018